



초등부
소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초등/소년부 교육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FUN FUN PLAY
친구들이 재미있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교육 내용	04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둘째 주	
분반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English Bible Study	28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5
어린이 QT God's Time	36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7
어린이 QT God's Time	48
편편 플레이	
선잇기	58
틀린그림찾기	59
워드큐티스티커	61
교육활동	63



7월 교육내용 질서 & I'm a C



암송 구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 고린도후서 6장 18절 -

♥첫째주♥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가 있어요.

♥둘째주♥

“하나님의 질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
*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요.

♥셋째주♥

“우선순위”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
* 하나님을 우리 삶에 최우선순위로 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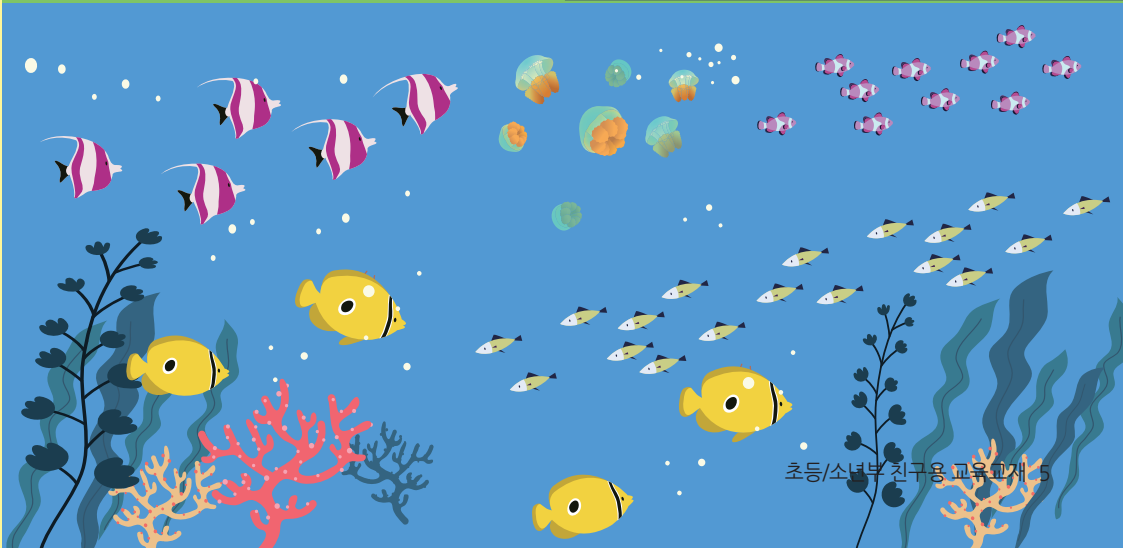
♥넷째주♥

“그리스도인의
영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8절)
*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실천 내용

1.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지킬 수 있는 질서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아요.
2. 한달간 나의 우선순위 표를 만들어보아요.



Memory Time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

첫째주

♥ 주제 : 질서 & I'm a C

♥ 암송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창세기 1장 1절

♥ 오늘의 주제 :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 ▷ 창세기 1:1-31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가 있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3-31절)
- 2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3, 6, 9, 11, 14, 20, 24절)
- 3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나요? (27절)
- 4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31절)
- 5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가 바뀌었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사람이 첫째 날 창조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첫째주

하나님께서서는 혼돈하고 공허한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셨어요(창1:2).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이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어요. 이러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질서에 맞게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서는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나누셨어요. 빛은 모든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예요. 둘째 날, 말씀으로 궁창, 곧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만드셨어요. 동·식물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 풀과 각종 채소,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들어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미리 준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여섯 째 날에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째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창조 사역을 마치셨어요(창2:2).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위한 것이예요.

하나님께서서는 무질서하고 무가치한 땅을 질서 있게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작정 이뤄진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기 가장 좋은 모습으로 질서 있게 창조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신 자연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Pray 우리 가정이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출애굽기 1:1-1:22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5. 한편 이집트 왕은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16.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17.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 두었다.
18.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일을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 두었느냐?"
19.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20.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21.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22.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 두어라."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산파 :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던 사람

with
관찰

1.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나요? (16절)

“아이가 이거든 죽여라.”

2. 산파들은 왜 이집트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나요? (17절)

“ 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with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때에 애굽에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안식처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자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억누르기 위해 애굽 정부에 많은 돈을 내게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애굽 왕은 나쁜 방법을 생각해 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도와주고 아이를 받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산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는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산파들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with
결심

그때 당시 애굽의 왕은 아주 두려운 존재였어요. 힘이 정말 센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산파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라고 명령할 때가 있어요. 다른 친구를 따돌리자고 요구하거나, 친구들을 괴롭히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주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 . .



with
말씀

출애굽기 2:1-10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1. 레위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2.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 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3.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4. 그 아이의 누이가 말쑥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 보고 있었다.
5.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 오게 하였다.
6. 열어 보니, 거기에 남자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7. 그 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8.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 왔다.
9.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 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삯**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10.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유모 :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이를 길러주는 사람.

삯 : 일을 한 대가로 주는 돈.



with
관찰

1. 레위 가문의 여자는 모세를 어디에 숨겼나요? (3절)

상자에 담아 갈대 사이에 숨겼다.

2. 상자를 보고 모세를 꺼내어 기르게 된 사람은 누구였나요? (5절)

딸

with
생각

모세의 부모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왕의 핍박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은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달간 모세를 집에 숨겨 길렀어요. 어느새 모세는 무럭무럭 자라 더 이상 집 안에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가에 흘려보냈어요. 이러한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였고, 안타깝게 여겨 그를 키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친어머니는 모세의 유모가 되었어요.

with
결심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모세의 경우에도 그랬지요. 하나님께서는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는 모세를 애굽 공주가 발견하게 하셔서, 친어머니 밑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친구들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2:11-25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1.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 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12. 좌우를 살피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13.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요?"
14.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15.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 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16.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17.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 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 떼에게 물을 먹였다.
18.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19.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 떼에게 먹였습니다."
20.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21. 르우엘은, 모세가 가까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탄로나다: 숨긴 일이 드러나다

with
관찰

1.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어떻게 했나요? (12절)

다.

2.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를 피해 어디로 도망갔나요? (15절)

땅으로 도망쳤다.

with
생각

모세는 왕궁에서 애굽의 공주에게 길러졌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보고 화가 나 그를 죽이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애굽의 왕은 모세를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망간 모세는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인연이 닿아 결혼하게 되었어요.

with
결심

모세는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참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왕자로 살았던 모세는 하루아침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는 망연자실하여 앉아 있었지만,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3:1-22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 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렘으로 갔을 때에,
2.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 지지 않았다.
3.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 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4.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5.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6.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뵈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7.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 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8.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위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 가려고 한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셨나요? (6절)

의 하나님, 의 하나님,
의 하나님

2.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셨나요? (7절)

백성들의 고난을 안다고 하셨다.

with
생각

모세는 40년을 애굽 왕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고, 40년은 미디안에서 목자로 살았어요. 그는 단순히 왕자로 행복하게 살다가 목자로 고통스럽게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었어요.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그동안 훈련 시키셨어요. 드디어, 하나님께 사용 받는 날이 왔어요.

with
결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당했어요. 모세도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땅에 있었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또한 잊지 않으세요. 늘 지켜보고 계세요. 그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with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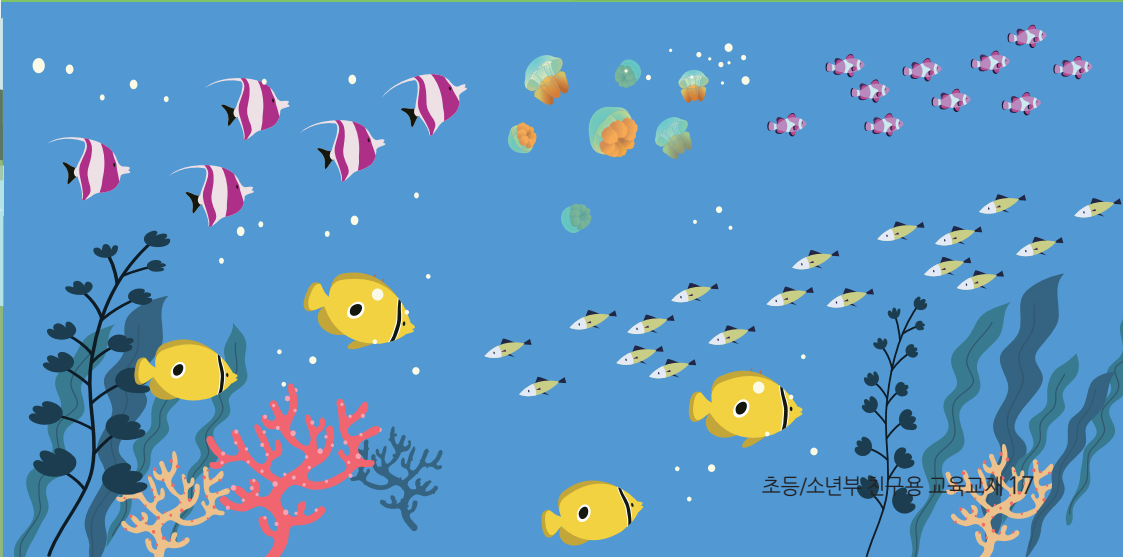
한줄 기도 :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우리가 될게요.

나의 기도 :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 고린도후서 6장 18절 -





Memory Time



하나님의 질서

둘째주

♥ 주제 : 질서 & I'm a C

♥ 암송구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 창세기 11장 9절

♥ 오늘의 주제 : 하나님의 질서 ▷ 창세기 11:1-9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이전에 온 땅의 언어는 몇 가지였나요? (1절)
- ②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4절)
- ③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는 목적을 알고 어떻게 하셨나요? (7,9절)

★ 교육 활동

준비물 : 무지 종이컵(10개), 색연필, 싸인펜, 빨대, 포스트잇(1장)

- ① 종이컵에 하나님의 질서를 여기는 내 안의 욕심을 적어보아요.
- ② 종이컵을 세워서 탑을 만들어요.
(가장 위에 올라갈 종이컵 바닥은 구멍을 뚫어주세요.)
- ③ 포스트잇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적고 빨대에 붙여요.
- ④ 종이컵으로 세운 탑 꼭대기에 빨대를 꽂아요.
- ⑤ 나의 욕심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겠다고 다짐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하나님께서서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드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탐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서 자신들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읍과 탐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창 1:28)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서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은 탐을 쌓기 시작했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어요.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서로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을 땅 곳곳에 흩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욕심대로 행했던 그들의 계획을 무너 뜨리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욕심이 있나요? 가정, 학교와 같은 곳에서 지켜야 하는 질서가 있듯,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질서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갈 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우리 안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Pray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4:1-17 “내가 돕겠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0.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11.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12.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13.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14.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 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15.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알려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16.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17.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무디다 : 느끼고 깨닫는
힘이나 표현하는 힘이
부족하고 둔하다



with
관찰

1. 바로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10절)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가 없는 사람
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이 둔하고 혀가
사람입니다.”

2.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2절)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다.

with
생각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고 말씀
하시며 모세를 도와주겠다고 약속 하셨지요. 그럼에도 모세는 이번엔 자신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때 모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형인 아론을 붙여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with
결심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두 번이나 거절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무책임하게
‘너가 알아서 하거라!’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께서 시키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지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항상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4:18-31 “아론이 함께하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7.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 하였다.
28.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29.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30.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 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굶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문안 : 안부를 여쭙. 또는
그런 인사

with
관찰

1. 하나님은 아론에게 어디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셨나요? (27절)

주님께서 아론에게, 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의 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2.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나요?
(30절)

아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는 모세의 말에 형인 아론을 함께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론에게 모세를 만나게 하시고 이집트로 돌아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요.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계셨고 살피실 것이라는 말씀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어요.

with
결심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 할 수는 없어요.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말 하는 것을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모세를 도와줄 아론을 보내셨어요. 바울에게 실라를 모세에게 아론을 함께하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순종할래요!
나의 기도: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5:1-23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4. 바로의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 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15.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 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16. 저희 종들은 짚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17.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 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18.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 내야 한다."
19.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20.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21.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 준 셈이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호소 :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간곡히 알림

수량 : 물건의 양

곤경 :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



with
관찰

1. 자신들을 왜 괴롭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바로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17절)

“... 너희가 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를 드리러
가게 해 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2.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21절)

“... 당신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하고 있소...”

with
생각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찾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일을 힘들게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가 갑자기 힘든 일을 시키자 이유를 물어 보았고, 바로는 너희가 일이 편하니 하나님께 예배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지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들 때문이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with
결심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바로가 힘든 일을 시키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잠깐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구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집트의 손에서 구해 주셨지요. 이스라엘 자손처럼 작은 고난에 흔들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출애굽기 6:1-13 “전도해야 하는 이유!”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0.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1.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12.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들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13. 주님께서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나요? (11절)

“너는 이집트의 왕 에게 가서,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2.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라 하셨나요? (13절)

자손, 왕

with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풀어
주도록 요구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에
게 더욱 힘든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
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라
고 명령하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자손
들은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며 계속 살아갈 수 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의 이유이기도 해요.
죄의 종노릇하며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지요. 죄에
빠져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를 해야 해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나의 기도 :

ENGLISH BIBLE STUDY



에베소서 2장 4-9절 (새번역성경) / Hebrews 11:8-12 (NIRV)

Faith—Trusting in what you can't see because of what you can see.

믿음-볼 수 있는 것으로 인해 볼 수 없는 것 또한 신뢰하는 것.

4.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5.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6.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7.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8.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Ephesians 2:4-9 (NIRV)

4. But God loves us deeply. He is full of mercy.
5. So he gave us new life because of what Christ has done. He gave us life even when we were dead in sin. God's **grace** has saved you.
6.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He has seated us with him in his heavenly kingdom. That's because we belong to Christ Jesus.
7. He has done it to show the riches of his grace for all time to come. His grace can't be compared with anything else. He has shown it by being kind to us. He was kind to us because of what Christ Jesus has done.
8. God's grace has saved you because of your faith in Christ. Your **salvation** doesn't come from anything you do. It is God's **gift**.
9. It is not based on anything you have done. No one can brag about earning it.

Vocabulary

Grace- 은혜

Salvation- 구원

Gift- 선물

Observation

Write the missing letters.

8 God's g_____ has saved you because of your faith in Christ. Your s_____ doesn't come from anything you do. It is God's g_____.

Interpretation

오늘 말씀은 바울이 쓴 편지예요.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어요.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예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을 믿는 것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믿는 것이예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ENGLISH BIBLE STUDY



Application

Many people rely on their own actions. What they planned, how much they tried is important in their point of view. But nobody is perfect. At some point of their lives, a person commits sins. When they do so, it is easy to get frustrated and disappointed because of their actions. But we Christians are not dependent on our own actions. We know well, how imperfect we are. We know that we can't avoid making mistakes. That's why we believe in God. God is the only one who can free us from our sins. And only when we believe in Him we can receive the gift of salvation. How blessed we are, granted of the gift of God, not because of what we do but because of what we believe in!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의지해요.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의 계획과 노력이 중요해요.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삶의 어떠한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그렇게 될 때, 자신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은 화를 내고 실망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를 최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Let's memorize

Let's memorize Ephesians 2:8, NIRV

에베소서 2장 8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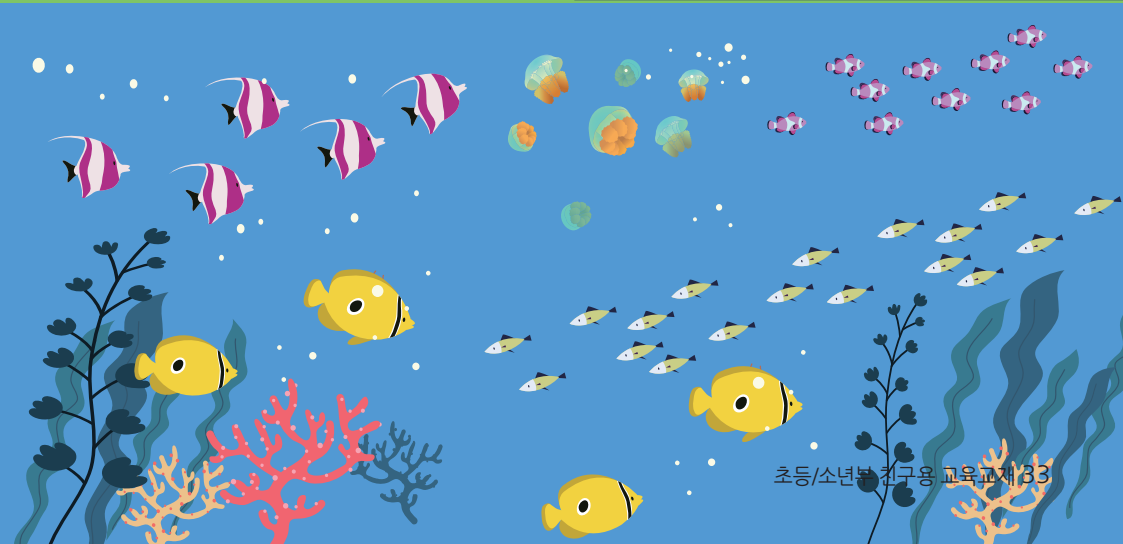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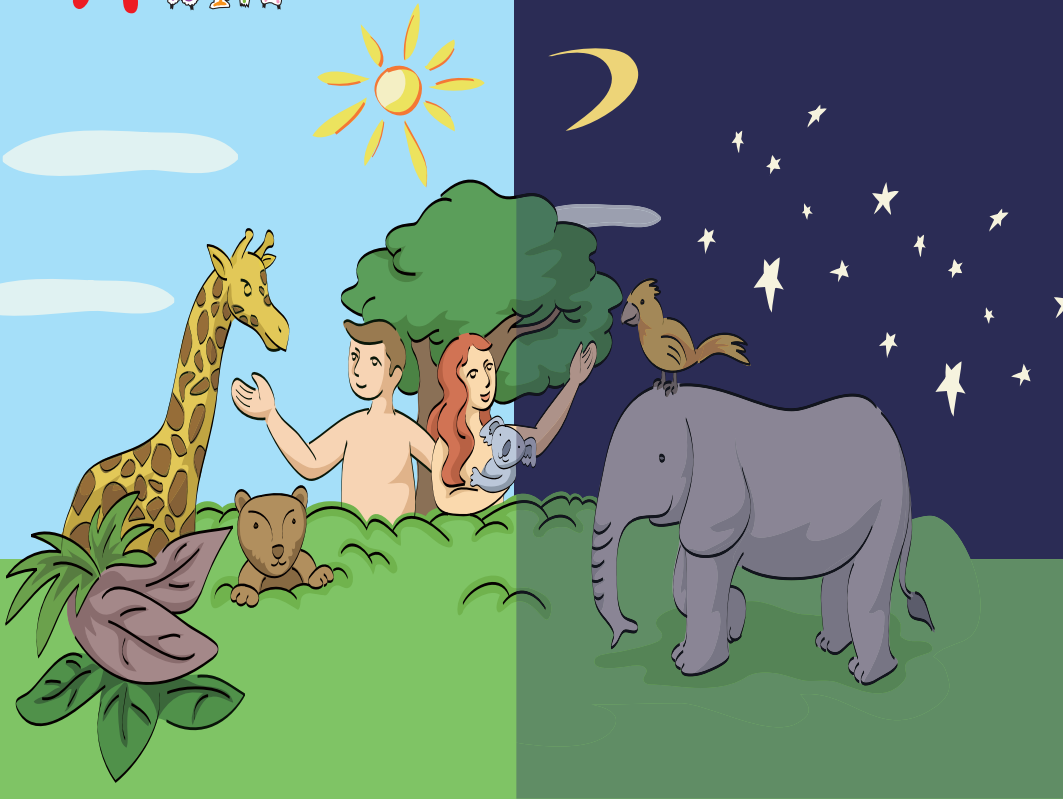
“God’s grace has saved you because of your faith in Christ.

Your salvation doesn’t come from anything you do. It is God’s gift.”

- Ephesians 2:8, NIRV -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 고린도후서 6장 18절 -





Memory Time



우선순위

셋째주

♥ 주제 : 질서 & I'm a C

♥ 암송구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

♥ 오늘의 주제 우선순위 ▷마가복음 14:32-42

하나님을 우리 삶에 최우선순위로 두어요.

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신 산은 어디인가요? (32절)

②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제자 3명은 누구인가요? (33절)

③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누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36절)

④ 예수님께서서는 겟세마네에서 총 몇 번 기도하셨나요? (41절)

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밥 먹고 가!”, “아 조금만 더 자고~”, “아 나 늦었어!” 우리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부모님과 전쟁을 치러요. 이른 아침, 밥을 먹는 것과 잠을 자는 것, 둘 중에 친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나요? 아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거예요. 배가 고픈 친구는 밥 먹는 것이 우선이고, 졸린 친구는 잠을 자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어떤 것을 우선으로 정하는지에 따라 질서(순서)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라고 해요.

우리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주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서대로 행동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신 장면이 나와요.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남기거나 마지막 만찬을 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겐세마니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막14:36)”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 앞에서도 기도하시며 자신의 생각(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지요. 그 결과,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답니다.

친구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셨지요. 그분을 본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의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 이상 꼭 생각해 보아요.

Pray 예수님을 본받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6:14-27 “하나님의 계획”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4.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라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이 르우벤 가문이다.
15.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인데, 이들이 시므온 가문이다.
16.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탕과 므라리인데, 레위는 백삼십칠 년을 살았다.
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립니와 시므이다.
18. 고탕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인데, 고탕은 백삼십삼 년을 살았다.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세대별로 본 레위 가문이다.
20.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백삼십칠 년을 살았다.
(생략)
26.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아들 아론과 모세이고,
27.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 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아들 모세와 아론이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편성 : 조직 등을 짜서 이름

분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림

with
관찰

1. 14-25절은 누구의 조상을 나열하고 있나요? (14절)

□스, □르

2. 아론과 모세에게 어떤 분부를 내렸다고 하셨나요? (26절)

“□□□□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 땅에서 □□ 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

with
생각

본문은 모세와 아론의 조상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맏아들인 르우벤을 시작으로, 레위, 게르손, 고핫, 므라리 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적혀 있어요.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낼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with
결심

모세와 아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일을 맡았어요. 그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단순하고 평범한 상황이지만, 이런 특별함 없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나의 삶에 특별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나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던, 평범하던 모든 상황을 통해 일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20.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6:28-7:6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8.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29.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30.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들겠습니까?"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2.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3.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4.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5.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6.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대언자: 남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

표징: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

with
관찰

1. 자신은 입이 둔하여 말할 줄 모른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주시겠다고 하였나요? (1절)

“... 너의 형 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2.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하겠다고 하셨나요? (5절)

“... 내가 입을 알게 될 것이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은 능력이 없다며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주셔서 모세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대한 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사람이 일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일을 해결하기 위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7:7-25 “내 마음의 모양”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15.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16.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으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 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7.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18.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19.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꿀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까지도 피가 꿀 것이다."
20.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21.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악취: 나쁜 냄새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찾아가서 지팡이로 무엇을 하라고 하였나요?
(17절)

“... 이 지팡이로 을 치면, 이 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2. 강이 피로 변하자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21절)

“...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없게 되었다. ...”

with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로 인해 강에 있던 물고기가 죽고 심한 악취가 났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된 것이예요.

with
결심

바로와 같이 마음에 완악함,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세요. 나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되심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채우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내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 2020.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8:1-19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2. 네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 하겠다.
(생략)
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6.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7.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8. 그 때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 주겠다."
9.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 하면 좋겠습니까?"
10.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11.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12.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13.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 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운하 : 배의 운항을 위해
육지에 파 놓은 물길

술객 : 마술사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요? (2절)

2.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겠다고 개구리를 거두어 달라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13절)

“...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

with
생각

바로는 첫 번째 재앙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두 번째 재앙을 내리세요. 온 나라에 개구리가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이를 본 바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다고, 주님께 제사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빌었어요.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거두어 주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내리셨던 벌을 다시 거두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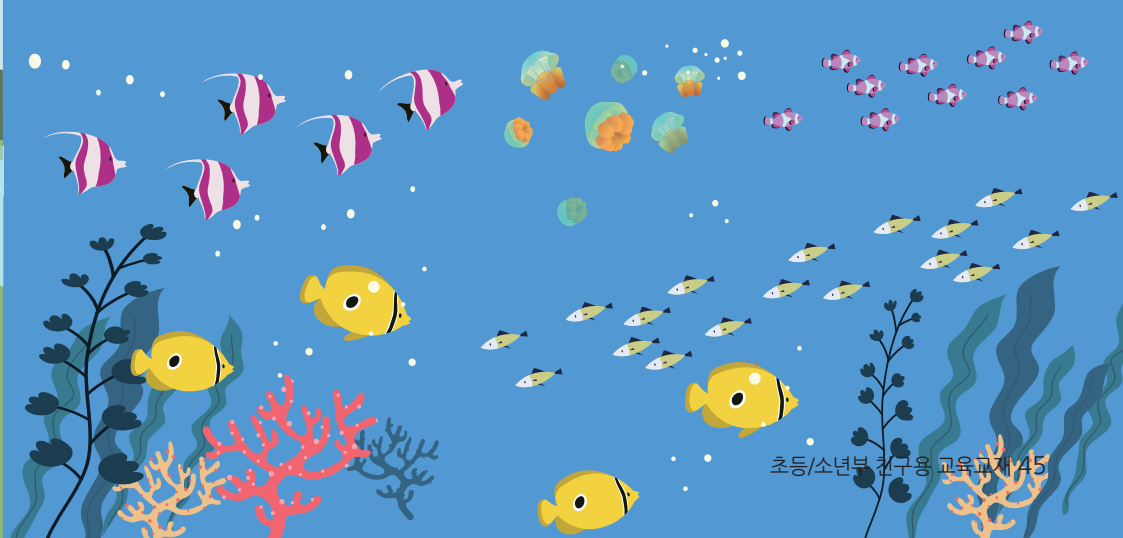
with
기도

한줄 기도: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 고린도후서 6장 18절 -





Memory Time



그리스도인의 영광

넷째주

♥ 주제 : 질서 & I'm a C

♥ 암송구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 고린도후서 6장 18절

♥ 오늘의 주제 그리스도인의 영광 ▷ 히브리서 11:1-40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4절)
- ②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요? (7절)
- ③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나요? (17절)
- ④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고후6:18)

★ 교육활동 - 성경학교 교재로 함께 활동해요!

준비물 - 성경학교 교재, 필기도구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넷째주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인가요? 만약,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면 영광스러울까요? 혹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상을 받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부자가 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영광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에요(고후6:18).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약속 받았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든 노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정복했던 여호수아까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러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걷는 삶이에요. 때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요!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Pray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출애굽기 8:20-32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0.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 때에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21.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22. 그러나 그 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23.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24.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25.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26. 모세가 말하였다. (생략)
27.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28.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29.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떼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31.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 있지 않게 하셨다.
32.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신 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보내겠다고 하셨나요?(20-21절)

2.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곳은 어디인가요?(22절)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네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네 신하들과 네 백성과 네 궁에 파리 떼를 풀어 놓겠다. 이 표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20-21절) 파리 몇 마리만 주위에 있어도 신경이 쓰이고 귀찮아 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파리 떼를 온 집과 땅 전체에 가득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파리 떼가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농작물에도 영향을 주어 이집트 온 땅이 파리 떼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24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바로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분이심을 나타내보이시기 위함이었지요.

with
결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은 지리적으로 이집트 밖에 있는 곳이 아니라, 이집트에 속해 있던 곳이었어요. 나일 삼각주에 위치했던 고센 땅은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각종 재앙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바로의 백성들과 구별하여 보호해 주신 것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을 구별하신 이유는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에게도 나타내보이기 위함이었었던 것이예요.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도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보이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할 줄 기도 :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출애굽기 9:1-35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 드리게 하여라.'
14.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15.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16.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 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려려고, 내가 너를 남겨 두었다.
17.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18.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것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에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19.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짐승들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20.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21.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 중에, 이집트에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18절)
①개구리 ②이 ③파리 ④우박 ⑤메뚜기

2. 하나님께서 바로를 지금까지 남겨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16절)

“너에게 나의 을 보여 주어, 에
나의 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 두었다.”

with
생각

이집트에 파리가 가득한 재앙 이후, 돌림병으로 가축이 죽게 되는 재앙, 악한 종기로 인해 사람과 짐승이 괴로워하게 되는 재앙이 이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며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집트에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이 없는 큰 우박을 내리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살려두시고 이집트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를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바로에게 6번에 걸쳐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바로는 더욱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에게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 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집을 부리는 바로를 통해서도 일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세요. 비록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는 바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제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저를 통해 복음이 전파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 . .



with
 말씀

출애굽기 10:1-29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3.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4.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5.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을 먹어 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6.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7.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8.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러 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 누구냐?"
9.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 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10.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 보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렵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11.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다음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3절)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하게 하여라.”

2.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위해 누구 누구를 데리고 가야한다고 했나요?(9절)

, , ,
, ,

with
생각

바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7번의 이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지요.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언제까지 굴복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땅으로 메뚜기 떼를 들여보내겠다.”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저 사람들을 내보내어 자기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이집트가 다 죽어 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 할 정도였어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이야기 했어요. “그렇다면, 어서 가거라, 가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와 함께 갈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이야기 하자, 모세는 어린 아이와 노인, 아들, 딸,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어요.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주를 할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남자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했어요.

with
결심

모세와 아론은 절기가 다가오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자장정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라고 말했지요. 바로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완벽한 순종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마치,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회개했지만, 행동은 변화되지 않고 같은 죄를 짓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순종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11:1-10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2.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붙이와 금붙이를 요구하게 하여라."
3.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4.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5.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멧돌질하는 몸종의 맏아들과 모든 짐승의 **만배**가 다 죽을 것이다.
6.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7.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져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8.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 주시오' 하고 사절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10.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만배 : 짐승이 새끼를 낳거나 까는 첫째 번, 또는 그 새끼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은 무엇인가요? (5절)

“이집트 땅에 있는 이 모두
죽을 것이다.”

2.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10절)

- 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
- ② 모세와 아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 ③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 ④ 10번째 재앙에서 자신의 가족들만은 구해달라고 했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 9가지의 재앙으로 바로와 이집트를 심판하셨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기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마지막으로 내리실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만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바로의 만아들을 비롯하여, 뗏목을 가는 여종의 만아들과 짐승의 처음 태어난 새끼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에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전보다 더 완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와 처음 난 것은 집과 가족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집트 전체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장자와 처음 난 것의 죽음은 집안의 미래와 계획이 모두 무너지는 것보다 같은 것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7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갈 수 있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생명과 삶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Morning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말씀 <시편 23편, 새번역>

1.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2.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신다.
3.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4.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5.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칫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6.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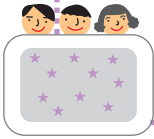
사랑하는 ○○아(야), 잘 잤니?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란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두려움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길 바라. 그럼 같이 기도할까?

“○○(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무리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살면서 다가오는 두려움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찬양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하는 ○○아(야), 오늘 ○○(이)의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꼈던 일이 있니?
 엄마(아빠)가 들어줄게 얘기해봐. (들은 후)

○○아(야)! 엄마(아빠)한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를 정말 사랑하셔서 찬양의
 가사처럼 ○○(이)를 위해서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그 아들까지 주셨단다.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고 그 사랑을 항상 느낄 수 있는 ○○(이)가 되기를 축복한다! 우리 그럼 자기
 전에 함께 기도할까?

“○○(이)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아들까지 저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이)가 오늘도 하루를 기도와
 감사로 마무리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해요.

저희들이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오늘 밤도 평안한 마음으로 푹 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일 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UN FUN PLAY

선 잇 기

7월의 주제는 '질서'예요.
 창세기 1장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대로 그림과 날짜에 맞추어 선을 이어보세요.

넷째 날
여섯째 날
다섯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첫째 날

틀린 그림 찾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기고, 바벨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들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해요! 두 그림을 비교하여 틀린 부분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64p에서 찾아보세요!

7월 QT +

STICKER

부 학년 반

이름 :



GOD'S TIME	1	2	3	4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 고린도후서 6장 18절 -



59p 틀린그림찾기 정답

